

『韓国語教育研究』(第12号)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후치자와 노에 학감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에 관해서

강 봉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2年9月

후치자와 노에 학감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에 관해서

강 봉식

1. 들어가기

먼저 姜奉植(2019¹)에서 지적한 ‘조선총독부로부터의 기부금 15만원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술은 총독부가 기부했다는 誤認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숙명고등여학교가 조선총독부에 15만원 기부금 모집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총독부로부터의 허가가 나왔다.’로 바로잡고 들어가겠다.

姜奉植(2010²)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2003년 3월에 텔레비 이와테가 한국에 가서 취재했을 때 숙명학원 이사장과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과는 취재를 했지만 숙명여자대학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학교 측에서는 후치자와 노에(淵澤能惠)는 숙명여자중고등학교와는 관계가 있지만 숙명여자대학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은 숙명여자전문학교인데, 후치자와 노에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대학 홈페이지의 대학약사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姜奉植(2010)에서 확인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¹ 姜奉植 「淵澤能惠と淑明女子専門学校創立について」 『淵澤能惠研究』 p.60、岩手県立大学淵澤能惠研究会 2019년 3월 15일

² 「淵澤能惠と明新女学校及び淑明女子専門学校の創立について—『淵澤能惠の生涯』韓国語翻訳出版を機に— 淵澤能惠誕生 160周年記念フォーラム、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 2010년 11월 13일 『日本韓国語教育学会創立記念国際学術大会誌』 수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0년 11월 10일

<인용³⁾>

일제하였던 당시 우리나라 교육사상 최초로 한국인 교장이 취임한 가운데 경선공과 영친왕궁이 하사한 황해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3도와 신천, 은율, 완도 등 6군의 농경지 수익금을 재원으로 11세~26세의 여학생 5명을 선발하여 문을 연 우리 숙명의 창학은, 외국의 자본에 의존함 없이, 오직 우리 힘으로 일으킨 민족 여성 교육의 효시였다.

이로부터 32년 후, 2차 대전 발발 직전의 암울한 시절을 보내면서 구국과 애족을 염원하던 당시 지성인들은, 보다 높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거국적인 '숙명여전 설립 모금 운동'으로 이어져 1938년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탄생되었다. 우리 대학교의 전신인 숙명여전은 황실이 제공한 막대한 재원과 교지 위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이러한 지식인 모금 운동에 힘입어 태어났으므로 그 설립 자체가 민족 지성사의 한 부분일만큼 감격적인 출범이었다.

대학약사에서는 후치자와의 기부금 1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마치 황실(정확하게는 '왕실')이 제공한 재원과 교지 및 지식인 모금운동으로 교사 및 기숙사의 건축비와 설비비 등의 창립 비용이 모아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창립 경비는 최종적으로는 67만원 가까이까지 불어났는데, 창립 재원의 출처가 대학약사의 기술대로 '황실 제공의 재원과 교지, 지식인 모금'만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 모금에 있어서 구태여 '지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도 의구심이 간다.

본고에서는 어떤 경위로 누가 학교 창립 구상을 기획하고 누가 준비해서 창학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창립 경비의 출처에 대해서도 특히 '지식인 모금'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에 대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³⁾ 숙명여대 홈페이지 대학약사에서 (2019.4.22 16:22)

2. 후치자와 학감과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부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1919년부터 1927년까지, 그리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의 약 10년 간 조선총독을 지낸 인물로 부인은 ‘하루코(春子)’라 한다. 사이토 마코토는 무쓰국 미즈사와(陸奥国水沢) 출신인데 후치자와도 같은 무쓰국의 히에누키(稗貫) 출신이다. 두 사람은 고향이 동향으로 현재의 이와테현인데 나이는 후치자와가 8살 많다. 하루코는 후치자와가 젊었을 때 근무했던 동양영화여학교(東洋英和女学校) 재직 시의 학생으로 후치자와보다 23살이나 어렸기에 모녀와 같은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영어에 능통한 국제인에다 리베랄리스트였으며 또한 경건한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평소 사이토 부부와 후치자와는 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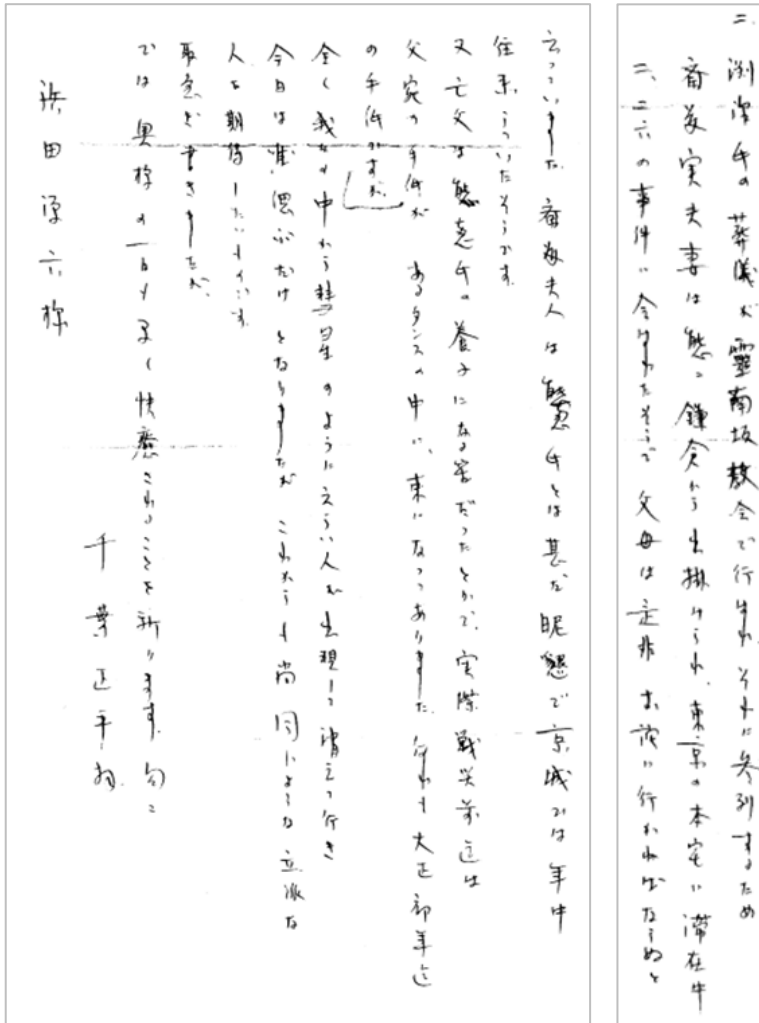
지바 쇼헤이(千葉正平⁵)가 하마다 겐록(浜田源六⁶)에게 보낸 편지(1978.7.27)에서도 ‘후치자와 씨의 장례식이 레이난자카(靈南坂) 교회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이토 마코토 부부는 가마쿠라(鎌倉) 별장에서 있다가 일부러 상경해 도쿄 자택에 머물던 중에 2.26사건으로 쿠데타 군인들의 습격을 받아 총격을 맞고 숨졌다고 하기에 (쇼헤이)부모는 반드시 사과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이토 부인은 후치자와 씨와 지극히 사이가 좋아서 경성에서는 서로 빈번하게 왕래를 했었다고 합니다.’라고도 쓰여 있어, 사이토 내외와 후치자와가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다. (아래 편지 오른쪽 세 줄과 왼쪽 머리 부분의 두 줄)

⁴ 村上淑子『淵澤能恵の生涯』原書房, p131-133

⁵ 노에가 6살 때 양부가 사망하자 양모는 지바 유스케(千葉勇介)의 후처로 들어가는데 이때 노에를 데리고 갔다. 지바 쇼헤이는 지바 유스케의 증손자.

⁶ 노에의 양부인 히토카베 신지로(人首新次郎, 후에 濱田로 개명, 濱田는 浜田의 옛글자.)의 손자.

<인용2>



3. 여자전문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후치자와 학감의 노력에 관해서

사이토 마코토는 1919년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그때까지의 무단정치를 중단하고 문화정치로 식민통치 제도를 전환하여 내선융화 정책을 펼친 총독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다. 사이토 총독은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도 법적으로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고, 1924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인가되는 등 조선의 고등교육정책을 전진시킨 총독이기도 하다.

1926년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창립 축하 행사 전날에 야마자키 에이이치(山崎英一⁷)가 취재하러 학교에 왔었다. 그 취재 기사에 따르면 후치자와가 ‘総督もおみえ下さるので…(총독님도 오시는데…)⁸’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의 총독이란 사이토 총독을 말하는 것이고, 오신다는 곳은 창립 축하 행사에 오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총독과 후치자와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취재에서 후치자와는 다음과 같은 대학 설립의 희망을 말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어렵게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진학할 곳이 없어 일본의 전문학교에 갔다가 의기상심해 돌아오는데 차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찌됐든 대학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⁹라는 것이었다. 후치자와는 경성제국대학의 개교에 연이어 이화여자전문학교가 개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숙명도 전문학교나 대학의 설립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바 쇼헤이가 남긴 메모에 의하면 ‘반 년에 한 번씩 이사회가 사은관의 2층에서 열렸다. 출석자는 각하, 시노다 차관, 시가 기요시(당시 경성대학 학장)의 2, 3명’이었다는 자필 메모가 남아 있다. 참석자 중 각하는 사이토 조선총독이며, 시노다 차관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이왕직차관을 말한다. 시가 기요시(志賀潔)는 정확하게는 학장이 아니라 총장이었다. 위의 세 사람 각각의 재임기간¹⁰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열린 시기를 산출해 보면, 시가 총장 취임시인 1929년 10월부터 사이토 총독 이임 시인 1931년 6월 17일까지의 약 1년 8~9개월 간의 기간으로 여겨진다. 개최 횟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반 년에 한 번 개최했다는 메모를 통해 유추해 보면 3~4회 정도의 개최가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 메모 1977.6.4, 밑에서 3줄)

⁷ 저널리스트

⁸ 山崎英一저 『女性』 むつみ会 1936년 7월 23일, p.2

⁹ 前掲書 『女性』 p.5

¹⁰ 사이토 총독(1929.8.17~1931.6.17), 시노다 차관(1923.2.24~1932.7.1), 시가 총장(1929.10~1931.10)

<인용3>

明治 37. 9. 2 養母 亡ル 死亡
 38. 56才 江藤哲蔵 氏 京城に連れて行く, 20才 岡部長政氏夫妻
 と同居する.
 39. 1. 8 京城の教員に転出
 45. 1 明新女学校を設立して以後 淑明高等普通女学校とを
 創立当時 李王家より 清津の水田1千町歩をえられた 資本金とする.
 の支出しは 夫の学費である
 朝礼には必ず出席 夫のとき 教育勅語を讀んで
 半年一回 理事会 謝恩館の二階を開くこと.
 出席者 岡下, 梅田次郎, 志賀渡博士(当時京城大学 学生)
 以上 2, 3人

1936년 2월에 후치자와가 사망하자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어 3년 후에 숙명여자전문학교가 개교가 된 점,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고등교육기관이 허가되기 시작했다는 사회 변화에 숙명학원도 뒤따라가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관한 후치자와의 발언이 계속되는 등,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멤버가 숙명학원에 모여 가진 이사회 의제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인용4>

나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래 여자중등학교를 나와 내지(内地, 즉 조선) 기타지역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우리들의 교육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은화하고 정숙한(溫良貞淑) 부도(婦道)를 손상시키고 일신을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를 근심하여 항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든 조선의 여성들에게 이 땅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재작년 동경에 가서 각계 인사들에게 호소하여 공감을 얻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한번 더 동경에 가고 싶어 정양에 힘쓰고 있지만 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여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다 교장선생께서 마쓰모토(松本雅太郎, 재단 간사)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동경에 가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교장립서류첩』

위의 『숙명 100년』¹¹에 따르면 후치자와 사망 4개월 전인 1935년 10월에 후치자와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재단 평의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후치자와가 여자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에 건너가 활동한 내용도 나오고 평의원들에게 여자전문학교 설립이 실현되도록 진력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사망 후의 도쿄에서의 설립 로비활동을 오다 교장과 마즈모토 간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제작년 도쿄에 갔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1933년 1월 23일 도쿄의 고지마치구(麹町区)의 후지미소(富士見荘)에서 열린 후치자와 노에 환영회에 참석한 시기인지 아니면 같은 해 11월 후치자와가 제국교육회 공로상을 수상한 시기인지 혹은 두 시기 모두인지 확실한 때는 알 수 없지만 후치자와가 이 해에 도쿄에서 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활동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때 후치자와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여자전문학교 설립에 관한 도움을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에 사이토 마코토도 만난 것 같다. 이 해는 사이토 마코토가 일본총리로 있었던 때였는데, 후치자와는 사이토 총리로부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2, 3년 기다리시게.’라는 조언을 받았다¹² 고 한다.

이어서 『숙명 100년』¹³에서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취의서의 마지막 부분을 발췌하여 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인용5>

여자전문학교의 창립은 현재 조선 교육계의 시급한 책무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업은 고 후치자와 여사 최후의 염원이자 그 일생을 바친 지극한 봉사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분 여사의 협력의 성과이다. 여사가 뜻을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이정숙 여사 역시 후치자와 여사보다 1년 앞서 세상을 떠난 것은 진실로 유감이지만, 두 분 여사의 숙원은 엄연히 지금도 존재한다.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후계자의 사명임과 동시에 또한 시대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삼가 본 사업을 계획한다.

—『전문학교창립서류철』

¹¹ 『숙명 100年』 I권,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년 5월 22일, p.219

¹² 濱田家에서 본 자료인데 현재 소재 불명.

¹³ 前掲書 I권, p.220

취의서에는 여자전문학교 설립 사업이 후치자와 여사 최후의 염원이었다는 점과 이정숙 여사와 함께 두 여사의 숙원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발간한 『숙명 100년』에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취의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출전까지 밝히며 두 여사의 유업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은 학교 측도 창립에 관한 후치자와의 공헌과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사이토 하루코 전 조선총독 부인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회

후치자와는 1936년 2월 8일에 노환으로 생애를 마치는데 그 18일 후에 사이토 마코토는 젊은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2·26사건의 습격을 받아 총격을 맞고 사망한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사이토 하루코 여사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등장한다. 하루코 여사의 등장은 후치자와가 생전에 남편 사이토 총독이 추진한 내선융화 정책을 여학교 창립 시부터 줄곧 실천해 왔고 또한 여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염원하다 사망한 후치자와의 교육열에 대한 존경심에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띤 등장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 (1937.3.7, 2면)에 의하면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위원장 篠田治策

위원 林茂樹、丹羽清次郎、渡邊豊日子、柳楽達見、武者鍊三、宇佐美勝夫、松山常次郎、松野瀧野、松本正寛、小林源六、有賀光豊、浅野太三郎、齋藤春子、城後信吉、関屋貞三郎、朴榮喆、張憲植、韓相龍、金漢奎、金性洙、関大植

위원·간사장 小田省吾

위원·간사 野村盛之助、松本雅太郎、李起奭·金永煥(職員代表)、金縣實·李淑鍾(業主代表)

이 외 위원에 成義敬、宋金璇、今井田清徳、児玉秀雄、有吉忠一

일개 사립학교의 창립위원회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이왕직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 총독부인을 비롯한 중추원의 참의, 은행의 취체역, 전 총독부 학무국장 등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위원회가 식민지 조선의 정계, 관료, 재계,

교육계의 쟁쟁한 멤버들로 구성된 것은 전 총독부인이며 전 총리부인인 하루코 여사의 진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하루코 여사 본인이 창립위원이 되어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창립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으로 생각된다.

조선일보(1939.4.21, 2면)에 의하면 같은 해 4월 22일에 총독부 내에서 거행되는 사이토 전 총독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코 여사가 20일 오후 1시 30분에 특급열차 아카쓰키(あかつき)로 경성에 도착했다고 보도됐다. 숙명여자전문학교 입학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렸기 때문에 입학식에는 참석을 못한 것 같으나 입학식 날 이틀 후에 동상 제막식이 있다는 것은 제막식을 입학식 시기에 맞추어 설정하고 조선에 들어온 것이라는 관측고 들고 입학식에는 참석을 못했으나 입학식 후에 창립위원들과 별도의 만남이 있었지 않았겠나 추측한다.

5. 후치자와 학감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구상에 관한 기사

후치자와 학감과 이정숙 교장이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설립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숙명여전의 탄생은 숙명여고보(淑明女高) 건설의 공로자인 고 김정숙(故金貞淑)¹⁴ 여사와 고 연택야혜(故淵澤野惠)¹⁵ 여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두 여사의 이름이 誤記로 나와 있으나 ‘숙명여고보 건설공로자’라고 일컫고 있는데 두 여사는 이정숙 교장과 후치자와 학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숙명여전의 탄생은 이 두 여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기사이다.

또한 ‘후치자와는 임종시에 자신의 퇴직금 1만원을 여자전문학교 창설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대로 『숙명 100년』¹⁶에서도 1만원이 숙명여전 창업비로 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38년 9월에는 숙명여전 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됐고, 같은 해 12월 21일에 설립 인가가 결정되어 이듬해 1939년 4월 1일에 숙명여자전문학교는 가정과(40명), 기예과(40명), 전수과(50명)의 3개 학과(신입생 130명)로 개교했다.

¹⁴ 고 이정숙(故李貞淑)의 오자.

¹⁵ 고 연택능혜(故淵澤能惠)의 오자.

¹⁶ 前掲書1권, p.241

<인용6>
 조선일보
 (1938.1.1,
 3면)



6.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 확보 경위에 관해서

당시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에 관한 주된 신문보도 및 『숙명 100년』에 실려 있는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매일신보(1937.3.7, 3면)에 의하면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들이 6일날 장곡천정(長谷川町) 은행 집회소에 모여 발기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토의하였다 한다. 학교 설립비로 드는 20만원에 대하여 숙명재단으로부터 4만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고 등택가(藤澤家)¹⁷로부터 1만원의 기부를 각각 얻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하여는 총독부의 보조를 비롯하여 각 방면의 찬조를 받고 매년의 경상비는 동 재단으로부터 1만 5천원의 보충이 있으리라고 한다.’는 내용이였다.

- * 조선일보(1938.4.14, 2면)에 의하면 ‘교사 건축비인 임시비35만원 중 25만원은 일반유지의 기부를 받기로 하고 기부 모집 인가를 당국에 신청하였는 바 시국 관계로 인가되지 않아 당초의 금춘 개교 계획은 전연이 되어… … 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당국과 절충한 결과 기부금 모집액을 2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여 기부금 모집인가 재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 * 조선일보(1938.4.24,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와 이왕비 전하가 전날에 숙명과 진명의 양 고등여학교를 방문했다고 한다.
- * 동아일보(1938.5.13)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숙명여전 기금으로 시가 20만원의 산림 (경성부 중암정 산야 48町6段8畝)을 하사했다고 한다.
- * 조선일보(1938.5.14,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지난달 숙명고등여학교 방문시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계획을 듣고 조선의 여자 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계획이라고 칭찬을 내리고 여자전문학교 설립 기본 자산으로 경성부 중암정에 있는 산야 48町6段8畝를 하사하라는 분부가 있어 이항구 이왕직차관으로부터 오다 쇼고(小田省吾) 교장에게 전달이 있었다고 한다.
- * 조선일보 (1938.5.18, 2면)에 의하면 숙명여전 기부금 모집원이 수 일 전에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지령이 내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 건축과 그 외 시설 등의 임시비로 35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20만원은 숙명고등여학교가 내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는 총독부로부터 허가받은 기부금을 임시비에 충당하고, 경영비(경상비)는 숙명고등여학교의 기본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기사.
- * 조선일보(1938.6.11,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다시 효창원 일부(청엽정 2정목 산2번지의 1호 효창공원의 일부)의 산야 6568평¹⁸을 교사 대지로 대하한다는 분부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창립위원장은 감격하여 창립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곳에 건축비 5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3층 건물 양옥의 교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올 가을에 착공해 내년 4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라 한다.

¹⁷ 고 연택가(淵澤家)의 오자.

¹⁸ 「財団法人淑明学園事業概況」(1939.4)에는 6,652 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 * 조선일보(1939.2.26, 2면)에 의하면 ‘개교 앞둔 숙명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신축 교사 부근의 국유지 1500평의 임야를 더 얻어 기숙사 신축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 『숙명 100년』¹⁹에 의하면 ‘이왕 전하로부터 하사된 종암정의 산야 48町6段8畝를 매각하기 위해 조선 식산은행과 한성은행에 시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가 각각 31만원과 17만원으로 나왔다. 매입자를 찾던 중 일본의 자본가인 다카바야시 효에(高林兵衛)와 1938년 6월 23일에 28만 5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인해 1939년 4월 19일부로 사이토 히사타로(齋藤久太郎)가 경영하는 황해 농업주식회사로 매입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 매각 후에 창업비 545,800원²⁰으로 부입 매지 및 정지(整地), 교사 건축 및 기타 창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미즈이(三井) 물산이 아사히(旭)정(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사무소의 기지(基址)와 1,084.30㎡(328평)의 건물을 숙명학원에 영구 기부했다.’²¹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창업 비용은 최종적으로 667,176.50원에 달했다. 참고로 『숙명 100년』에 기재되어 있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업비 수지 결산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찬조원 명단을 실어 둔다.

<인용7>
(前掲書 I 권,
p.241)

표3-6 숙명여자전문학교 창업비 수지결산**

수입		단위: 원					
항목	내역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계
하사지		35,000	250,000				285,000
채분금							
재단							
출자금		13,000	77,000	110,000	30,000	2,312,54	232,312,54
기부금	후치자와 유언기부	10,000					10,000
	복지가 기부	3,157,19	49,320	39,400	29,000		120,967,19
잠수입	예금이자	1,193,27	9,941,22	1,744,20	76,08		12,954,77
	잠수입	5,703	234		5		5,942
합계		68,053,46	386,495,22	151,234,20	59,081,08	2,312,54	667,176,50

지출		단위: 원					
항목	내역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계
용지비	용지매수, 정지비, 설계·감독비	24,553,58	25,020				49,573,58
건축비	교사, 기숙사, 체조장 등	20,600	275,167,01	207,271,12	30,346,19		533,384,32
설비비		4,280	33,375,55	34,535,44	3,945,47		76,136,46
창업비	모금비, 개교준비	5,200,19	2,343,13	202,32	336,50		8,082,14
예비비							
합계		54,633,77	335,905,69	242,008,88	34,628,16		667,176,50

¹⁹ 前掲書 I 권, p.233

²⁰ 前掲書 I 권, p.233

²¹ 前掲書 I 권, p.234

<인용8> (前掲書 I 권, p.225-226)

표3-2 속명여자전문학교 창립 찬조원 명단 (1937년)*	
거주지	성명
경성	김기덕(金基德), 김연수(金季洙), 김사인(金思演), 문상우(文尙宇), 민규식(閔奎植), 박흥식(朴興植), 방태영(方台榮), 안종원(安鍾元), 엄준원(嚴俊源), 윤치호(尹致昊), 이규완(李圭完), 이항구(李恒九), 장홍식(張弘植), 조동식(趙東植), 한만희(韓萬熙), 가토 게이사부로(加藤敬三郎), 간쇼 요시쿠니(甘蔗義邦), 다카하시 하마요시(高橋濱吉), 다카모토 유키타카(高本千鷹), 다니 다키(谷多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와다나베 야코(渡邊彌幸), 후지와라 요시즈(藤原喜藏), 스즈키 사쿠지(鈴木作次), 호사카 히사마쓰(保阪久松),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 아마노우에 조지로(山野上長次郎), 야마나카 다이키치(山中大吉), 미야케 가즈오(三明和郎), 모리 벤지로(森辨次郎), 미쓰이 에이나가(三井榮長), 이시카와 도모리(石川登盛),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닛타 요시타미(新田義民), 쓰지 도츄(辻董重), 야스카와 유노스케(安川雄之助), 다테 요쓰오(伊達四雄), 이모리 메이지(伊森明治), 사이토 분지(齋藤文治), 이노우에 가즈에(井上主計),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쓰즈미 에이치(堤永市), 사토 고조(佐藤剛藏), 사가타 분지로(佐方文二郎), 다케다 요시조(竹田善造),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郎), 요코세 모리오(横瀬守雄)
안악	김홍량(金鴻亮), 원효섭(元孝燮)
대구	박중양(朴重陽), 서병조(徐丙朝)
진남포	박상준(朴相駿)
황주	이동희(李東熙)
광주	현준호(玄俊鎬)
도쿄	조중구(趙重九), 시가 기요시(志賀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와타세 쓰네요시(渡瀬常吉), 모치즈키 게이스케(望月圭介), 아마모토 다다요시(山本忠美), 고자키 히로미치(小崎弘道), 마쓰노 쓰루헤이(松野鶴平), 지바 유헤이(千葉勇平), 구사무라 소카쿠(草村松藏),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시바타 겐자부로(柴田善三郎), 다가와 다이키치로(田川大吉郎), 시게타 간지로(重田勘二郎), 아사이 사이치로(淺井佐一郎), 에비나 단조(海老名弾正),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아라키 세이지로(荒木正次郎)
구마모토	에토 시게오(江藤繁雄)
요코하마	후치자와 사다오(淵澤貞雄)
오사카	야나기하라 기치베(柳原吉兵衛)

일본과 조선에서의 찬조자 수는 총 79명이며, 그 중 조선인의 이름이 23명, 일본인의 이름이 56명이다. 일본인의 이름이 조선인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에 대해 『속명 100년』에서는 ‘이처럼 일본 찬조원을 확보하는 데는 기부금 모집을 처음 추진한 후치자와 학감의 영향이 컸던 듯하다.’²²라며 후치자와의 공헌을 인

²² 前掲書 I 권, p.226

정하는 코멘트를 달고 있다.

기부금 총액은 120,967.19원으로 나와 있지만 찬조자 각자의 기부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각자의 정확한 기부금액은 알 수 없다. 기부금 총액을 총 찬조자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531.23원으로 되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원에 가까이 되는 금액이므로 결코 소액이 아닌 큰 금액이라 하겠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기부금액을 단순히 찬조자수로 나누어 추산하면 일본인 기부금이 85,749원이고 조선인 기부금이 35,218원이 된다. 정확성이 결여된 단순 추산액이지만 일본인의 추산 찬조금액은 후치자와의 기부금 1만원을 포함시키면 95,749원으로 총 창업비 667,176.50원의 14.4%²³를 차지하게 된다.

7. 나가기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은 이왕 전하로부터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구상을 한 자는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보면 후치자와 학감이라 하겠다. 후치자와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을 위해 조선총독, 이왕직차관, 경성제대 총장들과도 협의를 하고, 경성과 도교를 왔다갔다하며 일본 총리와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도 사망하기 전에 유언 기부를 하고 평의원들에게 뒤를 부탁하고 사망한 숙명학원의 이사(지금의 이사장)이며 학감이었다.

후치자와의 여전 창립 구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공감한 하루코 총리 부인의 진력으로 정·관·재·교육계의 쟁쟁한 인사들로 구성된 창립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었고, 이들의 인맥으로 일본과 조선의 각계각층에서 찬조자가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여전 창립에 관한 후치자와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후치자와 없이는 전문학교가 구상도 계획도 창립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며 이왕 전하로부터의 지원도 정치적 힘이 필요했던 시기인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 교육과 숙명학원에 대한 후치자와의 공헌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²³ 前掲姜奉植「淵澤能恵と淑明女子専門学校創立について」에서 誤추산 37%를 14.4%로 정정한다.

참고문헌

- 石井智恵美(1992)「淵沢能恵と「内鮮融和」—日本の朝鮮統治下における女性クリスチャンの一断面—」『基督教論集』35, 青山基督教学会
- 石鳥谷花の会編集委員会(2002)『淵沢能恵—韓国女子教育の礎を築いた人—』石鳥谷花の会
- 江藤太郎(2019)『江藤哲蔵伝』熊本出版文化会館
- 江藤伸子(2000)「淑明女学校と熊本英学校—淵沢能恵と熊本英学校人脈」『近代の黎明と展開—熊本を中心に』熊本近代史研究会
- 太田孝子(2002)「植民地朝鮮における淑明高等女学校—抗日学生運動を中心に—」『岐阜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 神山美奈子(2021)『わたちの日韓キリスト教史』関西学院大学出版会
- 姜奉植(2013)「淵沢能恵概説」『韓国語教育研究』3
- 姜奉植(2010)「淵沢能恵と明新女学校及び淑明女子専門学校の創立について—『淵沢能恵の生涯』韓国語翻訳出版を機に—」日本韓国語教育学会創立記念国際学術大会誌
- 姜奉植(2019)『「淵沢能恵研究」』岩手県立大学淵沢能恵研究会
- 斎藤實記念館建設実行委員会(1975)『斎藤實記念館(展示館)開館記念出版 斎藤實夫妻を偲ぶ』斎藤實記念館建設実行委員会
- 高橋伊勢次郎(1960)「韓国女子教育の恩人 淵沢能恵刀自について」『猿ヶ石叢書 第二十九輯』土沢郷土研究会
- 豊川善曄(1936)『淑明第二十号』校友会
- 日本韓国語教育学会創立記念国際学術大会編集委員会(2010)「淵沢能恵生誕160周年記念フォーラム 近代韓国女子教育の礎を築いた淵沢能恵」『日本韓国語教育学会創立記念国際学術大会誌』日本韓国語教育学会
- 藤原正造(1999)「淵沢能恵の生涯」『いしどりや歴史と民俗』13, 石鳥谷歴史民俗研究会
- 淵沢能恵を顕彰する会(2002)「淵沢能恵通信」創刊号
- 松田十刻(2008)『斎藤實伝』元就出版社
- 松本雅太郎(2000)「雅堂回想記」(1952년부터 집필한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재록)
- 松本雅太郎(1940)『校祖の余影』財団法人淑明学園・淑明女子専門学校
- 宮澤正典(2010)「同志社人物史102 淵沢能恵—韓国女子教育に献身した女性—」『同志社時報』130, 学校法人同志社
- 村上淑子(2005)『淵沢能恵の生涯—海を越えた明治の女性—』原書房
- 村上淑子(2009)『후치자와 노예의 생애』(姜奉植訳, 현학사)
- 山崎英一(1936)『女性』むつみ会
- 報道関係「婦女新聞、婦人新報、河北新報、岩手日報、京城日報、朝鮮日報、東亜日報等」の資料については、上記の姜奉植著「淵沢能恵概説」を参照のこと。
- 이시이찌예미[石井智恵美](1990)「연택능혜(1850-1936)의 신앙과 행동; 일본 조선식민지 지배와 일본여자 크리스찬에 관한 일고찰」(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숙명 100년사 편찬위원회(2006)『1906-2006 숙명 100년사』숙명여자중고등학교
-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2008)『숙명 100년 1906-2006 I-IV(전 4권)』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 홈페이지 : 숙명여자중학교(<https://sookmyung.sen.ms.kr>)
숙명여자고등학교(<https://sm.sen.hs.kr>)
숙명여자대학교(<https://www.sookmyung.ac.kr>)
숙녀회(<https://sookmyung1906.net>)

(본고는 2019년 한국LOGOS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화한 것임.)

(岩手県立大学国際教育研究部)
bs-kang@iwate-pu.ac.jp

韓国語教育研究 (第12号)

2022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文 嬉眞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李相穆、柳朱燕、金珉秀、
金昌九、權恩熙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